

## 항문에 발병한 파제트병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내과<sup>1</sup>정수현<sup>1</sup>, \*최수인<sup>1</sup>

**서론:** 파제트병은 골 파제트병과 유방 파제트병, 유방외 파제트병이 있으며, 그중 유방외 파제트병은 아포크린샘이 있는 피부에 발생하는 드문 암이다. 저자들은 혈변, 점액변으로 내원한 환자가 추적 검사 중 항문 병변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후 파제트병으로 진단된 1예를 보고한다.

**증례:** 63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혈변과 1달 전부터 발생한 점액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고혈압, 자궁적출술 과거력이 있었고 2개월 전 타원에서 시행한 대장 내시경에서 항문 직상방의 용종이 있어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림 A, B). 신체 진찰과 혈액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었고 분변 검사에서 검출되는 균 없었으나, 잠혈 101ng/mL로 증가된 소견이 있었다. 구불결장내시경 시행하여 항문연 상방 5cm에 위치한 미만성 점막 병변과 용종절거술 부위의 궤양 발견되어 조직검사 시행했으며 염증 외 특이소견 없었다. 변비약 투약하면서 경과 관찰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추적 구불결장내시경 시행하였고 직장 궤양은 호전되었으나 항문 주위의 피부 병변이 발견되어 편치생검을 시행하였다 (그림 C, D). 조직검사 결과 파제트형 전이를 가진 선암세포로 진단되었고(그림 E),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골반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주위 직장 및 왼쪽 서혜부의 림프절 비대가 관찰되었다. 파제트형 전이를 가진 직장선암 3기 진단하 capecitabine을 포함한 수술전 항암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고,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었다. 환자는 추가 수술을 거부하였고, 이후 추적 검사에서 재발 없이 3년째 관해 유지 중이다.

**고찰:** 유방외파제트병은 여성의 음문에 가장 호발하며 항문에서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다. 항문 주위에서 발병하는 경우, 약 14%는 내부 장기암과 연관이 있고, 약 70~80%는 항문, 대장, 직장의 침윤성 암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증상으로는 항문 주위 통증, 작열감이 있으며, 병변의 진행에 따라 혈변, 점액변 같은 소화기 증상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대장 및 직장에 대한 내시경 평가뿐 아니라 항문연 및 항문 주위 피부에 대한 주의 깊은 진찰이 필요하다.

